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응집성, 가족 적응성 및 가족체계 유형이 부모-청소년기자녀관계에 미치는 영향

The Influence of Adolescent-perceived Family Cohesion, Family Adaptability, and Family System Types on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강 사 전 귀 연
경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가정관리학과
교 수 최 보 가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yungpook National Univ.

Lecturer: Jeon, Gwee-Yeon

Dept. of Home Management, Kyungpook National Univ.

Prof.: Choi, Bo-Ga

〈 목 차 〉

- | | |
|------------------------|---------------|
| I. 서 론 | IV. 연구결과 및 논의 |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의 고찰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및 절차 | 참고문헌 |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family cohesion, family adaptability, and family system type on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 For this study, adolescents' perceptions of family cohesion, family adaptability, and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 quality were utilized. The 443 subjects were selected randomly from the second grade of middle and high schools in the city of Taegu. The survey instruments were FACES III and CAM/CAF. Factor analysis, Cronbach's α , MANOVA, and Scheffé test were conducted for the data analysis.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1) Adolescents who perceived their family as high in cohesion reported the highest

quality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 in comparison with other levels of cohesion.

(2) There were differences in adolescents' evaluations of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 quality by their perception of family adaptability levels. Namely, adolescents who perceived family adaptability to be low level-i.e. rigid family- showed the relatively severe problems in the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

(3) Adolescents did show some differences by types of family system in their evaluations of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 quality. Adolescents reported the highest quality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 when they perceived their families as balanced family.

I. 서 론

가족을 하나의 체계로 볼 때 그 구성과 상호작용은 특이하다. 체계이론에 의하면 가족이 하나의 체계일 때, 가족구성원은 요소(element)이고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형제자매관계와 같은 가족 내부의 관계는 하위체계(subsystem)이며 지역사회는 환경이다. 가족체계이론은 이러한 접근방법으로, 가족구성원 각각의 특성을 단독으로 연구하기보다는 오히려 가족구성원들의 상호적인 면을 연구한다. 바꾸어 말하면 체계이론의 주안점은 개인의 역동이나 행동보다는 관계에 둔다(Buckley, 1967).

가족과 관련된 체계이론은 가족체계, 2인으로 구성된 관계(하위체계), 개별적 가족구성원(요소) 및 사회(환경)가 모두 잠재적인 분석 단위라는 것을 암시한다. 그러나 가족체계를 조사한 초기 연구들은 가족체계와 2인가족관계(dyadic relationship)간의 관련성을 소홀히 했으며 일부는 분석의 단위로서 가족체계만을 강조했다(Angell, 1936; Hill, 1946). 이 연구들은 사회사건에 대한 가족단위의 행동이나 반응에 초점을 두었으며 가족내의 2인가족관계나 가족구성원 개개인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가족체계에 대한 최근의 연구에서는 가족체계가 가족구성원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했으며 개인의 행동 장애에 대한 사회적 배경, 예를 들어 가족과 같은 것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Alexander, 1973). 특히 Haley(1963), Watzlawick, Beavin과 Jackson(1967) 및 Bowen(1978)등은 개인

의 행동을 가족배경의 결과로 간주할 때 얼마나 더 잘 이해될 수 있는지를 입증하기 위해 체계이론을 이용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행해진 연구들은 가족구성원의 정신분열증(Reiss, 1971; Bowen, 1978), 비행(Drunkman, 1979), 가출(Bell, 1981), 알콜중독(Killo-rin & Olson, 1980), 신경성 식욕부진(Minuchin, 1978), 공격성(Alexander, 1973)을 설명할 수 있는 변인이 가족체계임을 제시했다. 이러한 연구 중의 대부분은 가족구성원 중 청소년기자녀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청소년의 행동을 가족배경에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시키고 있다. 그러나, 가족체계와 개별 가족구성원 중 청소년기자녀의 행동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일부 이루어졌으나 부모-청소년기자녀관계에 대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한편 Hill(1971)은 체계이론과 가족발달이론을 함께 고려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생활주기의 각 단계는 독특한 일련의 과업을 가진 과도기를 가지므로 가족응집성 및 가족적응성의 가장 바람직한 수준은 각 단계의 독특한 과업에 따라 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부모자녀관계를 위한 가족응집성과 적응성의 가장 바람직한 수준은 가족의 발달단계에 따라 다를 것이므로 부모자녀관계를 조사할 때 가족의 발달단계를 고려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 채택한 가족발달단계는 가족구성원 중 최소한 한명이 청소년기에 있는 발달단계이다. 가족생활주기의 다른 단계와 더불어, 가족발달의 단계는 가족이 적응해야 할 과도기이며 수행해야 할

독특한 발달과업을 가진다. 예를 들어 많은 연구자들은 청소년기자녀와 관련된 가족의 중요한 과업 중의 하나는 청소년기자녀에게 더 큰 자율성과 독립성을 촉진시키는 것이라고 했다(Douvan & Adelson, 1966; Duvall, 1977; Adams, 1980).

가족체계이론은 청소년의 발달과업 그 자체보다는 청소년기자녀를 가진 가족의 발달과업과 과도기에 대한 가족의 반응에 관심이 있으므로, 본 연구는 가족체계가 청소년기자녀를 둔 가족의 부모기자녀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데 목적을 두고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가족응집성의 수준에 따라 부모-청소년기자녀관계의 질에 차이가 있을 것인가?

둘째, 가족적응성의 수준에 따라 부모-청소년기자녀관계의 질에 차이가 있을 것인가?

세째, 가족체계유형에 따라 부모-청소년기자녀관계의 질에 차이가 있을 것인가?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의 고찰

가족체계연구는 가족체계의 어떤 특정한 차원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그러한 관점에서 행해진 가족체계이론과 조사는 가족응집성(family cohesion)과 가족적응성(family adaptability)이라는 두가지 뚜렷한 차원을 제시했다. 기본적으로 가족응집성은 가족이 함께 연결되어 있는 정도를 의미하며(예, 분리대 단결을 고무하는 것), 외부 환경에 대하여 개방적인지 아니면 소외되어 있는지를 언급하는 것이다. 가족적응성은 한가족이 가족의 규칙, 역할 및 전략을 내적·외적인 필요와 목표에 반응하여 변화시킬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가족체계의 감정적·정서적 차원과 조직적인 권력 차원을 나타내는 이러한 개념은 가족체계내의 하부체계인 부모-청소년기자녀관계에 함축적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1. 가족응집성

Minuchin등(1967)은 많은 문제를 가진 가족(예, 한명 이상의 비행자녀)과 한명의 비행자녀도 없는 가

족을 비교연구했다. 가족응집성의 측면으로 Minuchin은 문제가 있는 가정과 없는 가정을 구별하기 위해 '밀착-과잉분리 연속체'를 개발했다. 그 연속체의 한쪽 끝에는 밀착가족(높은 응집성)으로, 밀접하게 상호연결된 관계가 특징이다. 이러한 가족에게는 자기감, 독립성, 자율성 등을 개발할 기회가 거의 없다. 연속체의 다른 쪽 끝에는 과잉분리가족(낮은 응집성)이 있다. 이 가족은 가족소속감이나 단결감이 거의 없다. Minuchin과 그의 동료는 많은 문제를 가진 가족이 연속체의 양극단에 있는 반면, 문제가 없는 가족은 중간에 있는 것 같다고 보고했다. 그러므로 가족응집성 연속체의 양극단에 묶여 있지 않고 중앙을 향해서 움직이기 쉬운 가족은 청소년기자녀에게 자율성과 독립성을 허용하며 청소년문제를 더 적게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Reiss(1971)는 또한 정상가족, 비행가족과 정신분열가족에 대한 연구에서 가족응집성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다. 가족의 상호작용을 연구함으로써 Reiss는 다음과 같은 행동의 3가지 유형을 밝혀냈다. 대인간거리-민감형(비행가족), 환경-민감형(정상가족), 일치-민감형(정신분열가족). 이러한 분류에 따르면, 대인간거리-민감형 가족은 Minuchin의 과잉분리가족(낮은 응집성)과 유사하다. 그들은 가족소속감에 대한 지지나 의미를 거의 부여하지 않는다. Reiss에 따르면, 이러한 가족들은 비행자녀를 가지기가 쉽다. Reiss의 일치-민감형 가족은 Minuchin의 밀착가족과 유사하다. 이러한 가족들은 공동전선(united front)을 제시하고 반대는 허용하지 않는다. 그들은 조화, 일치, 찬성을 유지하려고 애쓴다. Reiss의 연구에서 이러한 가족들은 정신분열증의 구성원이 있을 수도 있다. Minuchin과 마찬가지로 Reiss의 정상가족은 다른 두 극단 사이에 있다. 바꾸어 말하면 그들은 개별적인 자율과 가족단결 사이의 균형을 나타낸다.

청소년 비행에 대한 Glueck부부의 연구(1950)도 역시 가족응집성의 차원과 관계가 있다. 현장조사자들이 가정을 방문하여 가족구성원 사이의 관계 정도를 조사한 결과는 가족응집성 정도에 따른 세가지 범주였다. 이러한 분류에 따라서 비행자녀가 있는 가족과 없는 가족을 비교해 보면, 비행자녀가 없는 가

족이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응집성을 가지고 있었다.

Rosenblatt와 Titus(1976)는 '결합-분리'의 연속체로 가족응집성의 측면을 고찰했다. 이들은 최선의 해결책은 가족구성원이 분리와 결합 사이의 균형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청소년은 부모가 결합을 많이 요구하는 것을 통제로 보는 반면, 부모는 청소년기 자녀가 이탈하려고 하는 것을 위협으로 본다는 것에서 그 한 예를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은 더 많은 독립과 자율을 누리려고 할 때 가족의 지지와 격려를 받을 수 있으면, 가족을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된다. 이 상황은 청소년의 독립을 단념시키고 방해하려는 가족(극도의 결합)이나, 있다 하더라도 가족구성원에게 거의 지지를 하지 않는 가족(극도의 분리)과는 대조적이다.

Stierlin(1974)은 가족응집성의 측면을 가족내에서 작용하는 두가지 정반대의 힘-구심력과 원심력-사이의 투쟁으로 나타낸다. 구심력은 가족구성원을 감정적 구심점으로 밀어넣는다. 만일 이러한 힘만 전적으로 작용한다면 가족응집성이 높아지거나 Minuchin의 밀착이 나타난다. 반면에 원심력은 가족구성원을 가족체계 밖으로 밀어낸다. 만일 이 힘만이 전적으로 작용한다면 Minuchin의 과잉분리와 유사한 것이 나타날 것이다. 부모-청소년기 자녀관계에서 이러한 힘의 작용을 논의할 때 Stierlin은 두 힘이 각각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한가지 힘만이 우세할 때 역기능이 야기될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부모-청소년기 자녀관계는 이 두 힘이 균형잡힌 가족체계내에서 작용할 때 문제가 더 적게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2. 가족적응성

가족적응성은 가족이 규칙을 세워서 유지하고 가까이 변화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가족 상호작용의 몇가지 측면-가족이 변화(예, 가족발달 단계)에 반응하는 융통성정도, 가족의 지도력, 권력 및 훈육같은 것-을 포함한다.

가족적응성과 관계가 있는 부모의 지도력이나 훈육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대개 허용적인 가족환경과 제한적인 가족환경이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

는가 하는 것이었다. 자유방임형(허용적), 민주적인형, 권위주의적이거나 전체적인형(제한적)을 포함해서 지도력이나 훈육 유형의 범위를 나타내기 위해 몇가지 용어가 제시되었다. Jurich(1975)는 자유방임형 부모를 자녀에게 그들 자신의 목표, 규칙, 제한점을 결정하도록 허락하는 부모로 기술하고, 많은 연구가 자유방임형 양육이 청소년 비행, 약물남용, 가출행동과 관계되어 있다는 결론을 내리며, 규칙과 한계점을 결정하는 전권을 부모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 양육방식도 또한 청소년비행, 약물남용, 가출 청소년과 관련되어 있다고 했다.

Balswick과 Macrides(1975)는 부모가 극도로 제한적이거나 허용적일 때 자녀들은 더 많은 반항을 하게 되었다고 보고했다. 대마초흡연을 청소년 반항의 척도로 사용한 Hunt(1974)는 민주적 부모가 낮은 정도의 대마초 흡연과, 부모의 제한(전제적)은 보통 정도의 대마초 흡연과, 부모의 허용성은 높은 정도의 대마초 흡연과 관계있음을 발견했다. 이와 유사하게 몇몇 연구자들은 극도로 전체적인 훈육과 극도로 자유방임적인 훈육은 자녀들의 비행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했다(Glueck & Glueck, 1950; McCord et al., 1959; Hetherington, 1971).

Baumrind(1971)는 허용적, 민주적, 전체적 부모가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했다. 그는 허용적이거나 민주적인 부모의 자녀는 전체적인 부모의 자녀보다 책임감과 성취욕이 더 강하다고 보고했다. Kandel과 Lassar(1969)는 청소년기 자녀와 부모가 의사결정에 함께 참여하는 민주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부모의 청소년자녀들은 허용적이거나 전체적인 부모의 자녀들보다 더 독립적일 것 같다고 했다. 실제로 만일 청소년기가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하게 개발시킬 때라면, 민주적인 양육방식은 이 시기에서 가장 촉진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이 그들의 가족체계를 민주적인 방식(중간 수준의 적응성)으로 지각할 때 부모에 대해 가장 긍정적인 감정을 갖게 될 것이며, 이것은 청소년의 태도, 인식, 행동에서 나타날 것이다. 이와 상충하게, Rollins와 Thomas(1975)는 대부분의 양육연구의 일반적인 결론은 지도-훈육이 지나치게 허용적이거나 제한적인 유형이 중간범위 즉 민

주적인 유형보다 자녀에게 더 많은 문제징후나 문제 행동을 야기시킨다고 했다.

가족적응성의 차원과 관련지어서, Minuchin(1974)은 스트레스가 종종 가족내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야기시킨다고 진술했는데 이 스트레스의 기원은 외적 요소(예, 자연재해)나 가족내의 내적 압력(예, 발달적 과도기)일 수도 있다. Minuchin은 모든 가족이 변화가 필요한 상황에 놓여졌을 때, “스트레스에 직면한 가족이 상호작용의 패턴과 경계를 엄격하게 하고, 어떠한 대안의 탐색도 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병리’라는 이름이 붙여진다”라고 했다. 그래서 Minuchin에 따르면 보다 건강한 가족은 스트레스에 더 적응적이고 융통성 있게 반응하는 반면, 병리적인 가족은 그러한 유형이 역기능을 일으킬 때조차 옛 유형을 유지한다. 이 원칙을 본 연구에 적용해 보면 적당히 적응적인 가족은 이 차원의 양극단에 있는 가족보다 청소년기자녀에 수반되는 과도기에 더 잘 적응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3. Olson의 Circumplex Model의 이론적 개발 및 경험적 지지

Angell(1936)과 Hill(1949) 이래로 가족응집성과 적응성 모두를 연구한 사람은 거의 없으며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이 측면의 한가지 혹은 다른 부분에 초점을 맞춘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Olson등이 가족응집성과 적응성이라는 개념을 하나의 개념모델 속에 체계적으로 통합하려는 시도로서 Circumplex Model을 개발한 이래 이에 관련된 연구가 많이 행해졌다.

가족기능에 관한 Circumplex Model은 Olson과 그의 동료들이 연구의 이론 및 실체에 대한 차이점을 극복하기 위해 가족 기능에 관련된 문헌에서 제시된 50가지 이상의 개념들간의 관련성을 탐색하여 귀납적으로 개발되었다. 군집분석기법을 사용하여 Olson, Russell과 Sprenkle(1979,1983,1993)은 가족기능을 묘사하고 평가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주요한 양방향성의 두개의 요인-가족응집성 및 가족적응성-과 단방향성의 세번째 요인-가족의사소통-을 결정했다.

Olson등이 결정한 두개의 중요한 양방향성 요인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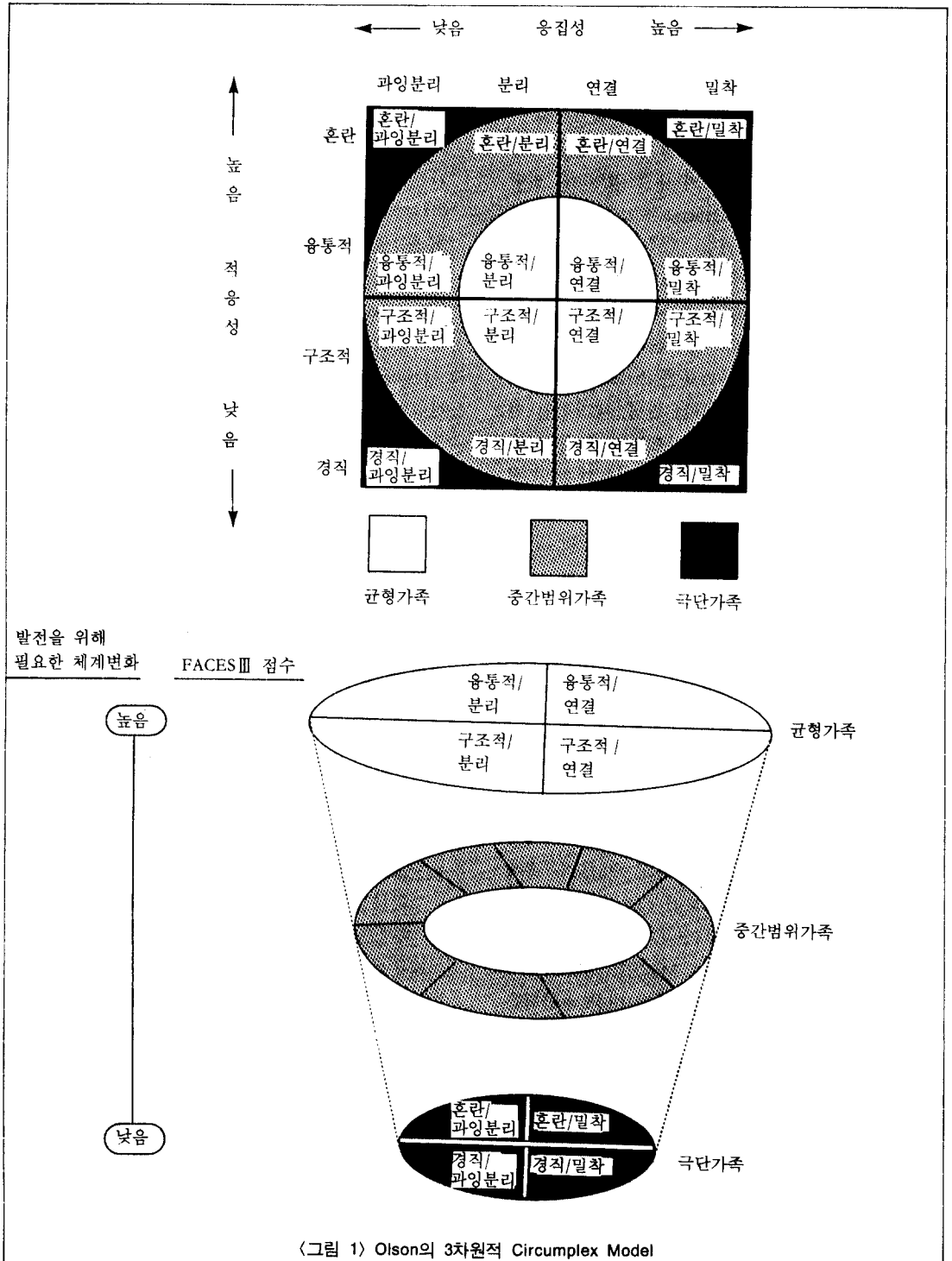
중의 첫번째는 관계요인으로 가족응집성이라 한다. 가족응집성은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가지는 정서적 유대”라고 정의된다(Olson, Russell & Spenskel, 1983. P.70). 이 요인은 외부세계에 대한 가족경계선의 침투성은 물론 가족 내부구성원간의 친밀감을 평가한다. 너무 적거나 너무 많은 정서적 유대는 개인이나 가족의 기능에 건전하지 못하다고 여겨진다는 점에서 양방향성이다. Olson등(1979, 1983)이 규정한 응집성의 네가지 수준은 과잉분리(disengaged), 분리(separated), 연결(connected), 밀착(enmeshed)으로 나뉘어진다.

Olson등이 규정한 두번째 중요한 양방향성 요인은 변화와 유연성(flexibility)요인으로 가족적응성이라 부른다. 이것은 “상황적 혹은 발달적 스트레스에 반응하여 자체의 권력구조, 역할관계, 관계적 규칙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족체계의 능력”으로 정의 내려진다(Olson et al., 1983. P.70). 적응성은 권력, 협상 스타일, 관계적 규칙과 같은 개념들을 포함하고 있다. 너무 많거나 너무 적은 적응성은 건전하지 못하므로 또한 양방향성이라 규정된다. 가족적응성의 네 가지 수준은 경직(rigid), 구조적(structured), 융통적(flexible), 혼란(chaotic)으로 나뉘어진다.

Olson등은 가족유형을 결정하는 데 세가지 요인 중 응집성과 적응성을 사용했다. 직교적이고 양방향성인 두 요인을 기초로 하여 16개 유형의 가족체계를 분류하고 이것을 3차원으로 도식화했다(<그림 1>참조, Olson, 1993).

그러나 가족체계 연구시에 정상가족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16개 유형으로 자세히 분류하여 논하기 어려우므로 가족응집성과 적응성의 점수에 따라 극단가족, 중간범위가족, 균형가족의 3종류로 가족체계를 나누어 체계유형을 연구하거나(Olson, 1985; Lavee & Olson, 1991), FACESⅢ의 점수에 따라 극단가족, 중간범위가족, 약간 균형된 가족, 균형가족의 4종류로 가족체계를 나누어 연구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Olson, et al. 1992).

Olson의 Circumplex Model의 기본 가설은 극단가족보다 균형가족들이 보다 적절하게 기능한다는데 있다. 이 가설을 검증하려는 최초의 연구 중 하나는



Russell(1979)의 연구로서 청소년 여아를 가진 비임상적인 31개의 가족에 대한 것이다. '위기'에 직면하여 잘 기능하는 가족은 가족응집성과 적응성수준이 적절한 반면에, 잘 기능하지 못하는 가족은 응집성과 적응성의 수준이 극히 높거나 낮았다.

Sprenkle과 Olson(1978)은 부부관계 상담중인 임상상부부 25쌍과 비임상상부부 25쌍을 부부기능의 적응력 차원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연구했다. 위기상황에서 임상상부부는 보다 기능적이지 못한 체제와 관련된 반면에, 비임상상부부는 보다 적절한 기능과 관련되는 더 평등한 지도체계 즉, 적응성에서 균형잡힌 수준을 유지하였다.

Portner(1981)는 가족치료 중인 청소년으로 인해 곤란을 겪고 있는 55개 가족을 117개의 비임상 가족과 비교했다. FACES(the Family Cohesion and Adaptability Evaluation Scales)와 IPAC(Inventory of Parent and Adolescent Conflict)를 사용하여 가족기능과 응집성과 적응성의 수준을 평가한 결과, 비임상가족의 대부분은 균형가족에 속하는 반면, 임상가족은 극단가족에 속하며 특히 응집성은 과잉분리에, 적응성은 혼란된 수준에 있는 경향이 있다.

비슷한 연구에서 Bell(1982)은 가출청소년이 있는 33개 가족을 Portner(1981)연구의 통제집단인 117개 가족과 비교했다. FACES를 사용하여 평가한 결과, 비임상가족의 어머니와 청소년이 적응성과 응집성 차원에서 보다 균형적인 반면에 가출청소년이 있는 가족이 중간범위가족과 극단가족이었으며 특히 응집성 차원에서는 과잉분리에, 적응성 차원에서는 혼란된 수준에 속해 있었다.

Garbarino, Sebes와 Schellenbach(1984)는 위협성이 높은 가족의 청소년이 더 많은 문제를 가졌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발견은 가족기능에서 극단의 수준은 가족구성원의 건전한 발달에 악영향을 미치고 더 많은 개인 병리와 관계된다는 Olson의 가설을 지지했다.

Clarke(1984)은 FACES II를 사용하여 정신분열증 환자의 가족, 노이로제 환자의 가족, 과거에 치료경험이 있는 가족, 그리고 치료경험이 전혀 없으며 문제를 갖지 않는 가족을 통제집단으로 하여 네 종류

의 가족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균형가족의 비율은 통제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48%), 다음이 치료경험이 있는 가족(38%), 정신분열증 환자의 가족(12%), 노이로제 환자의 가족(8%) 순으로 나타났다.

Barnes와 Olson(1985)은 Olson의 Circumplex Model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위한 이전 연구가 거의 대부분 문제가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고, 비임상적인 426개의 정상가족내의 부모와 청소년기자녀간의 의사소통에 대한 연구를 했다. 부모와 청소년기자녀들의 지각을 합하였을 때는 균형가족이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는 가설이 지지되었다.

Rodick, Henggeler와 Hanson(1986)은 FACES를 사용하여 58개의 모자가족을 연구했다. 이중 절반은 소년범이 있는 가족이고 나머지는 범죄경력이 없거나 정신병의 병력이 없는 가족이다. 소년범이 없는 가족의 대부분(68%, 29개 중 19개 가족)은 응집성과 적응성에서 균형수준을 보고했으며, 대조적으로 소년범이 있는 가족은 29개 중 2개 가족(7%)만이 균형가족에 속했다. 범법청소년이 있는 가족의 대부분(29개 가족 중 17개 가족)은 응집성 수준은 밀착에, 적응성은 혼란된 수준에 속했다.

한편 국내연구로, 임용우(1984)는 정상가족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족체계유형과 부적응행동에 관한 연구를 통해 균형가족보다 극단가족의 청소년들이 부적응행동을 많이 나타낸다고 보고했다. 유순덕(1987)은 39개의 임상가족과 117개의 일반가족의 어머니와 청소년기자녀의 지각을 통해 가족체계유형에 대한 연구를 한 결과, Olson의 Circumplex Model이 정상가족과 역기능적 가족을 판별할 수 있다고 했다.

이상에서 살펴본 연구들은 균형가족이 가족구성원간에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하며 문제청소년이 적다는 것을 입증했다. 그러나 대부분 연구들의 한계점은 비행이나 가출청소년등 문제청소년 유형만을 연구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가족들이 기능적이며 병리적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가족에 관한 연구도 이들 정상적인 가족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이다(박기순, 1984).

4. 부모자녀관계

부모자녀관계는 개인의 인격형성과 사회화에 중요한 인간관계로서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 분야이다. 이러한 연구에서 나타난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1950년대와 60년대에는 가족의 사회화 연구에 대한 주된 접근방법으로 자녀에 미치는 부모의 일방적인 영향을 밝히는 것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에 이르러 연구자들은 부모-자녀의 쌍방적인 영향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었고 자녀들이 어떤 방식으로 부모의 행동을 유발하는가에 대해 연구하게 되었다. 1980년대에는 사회변화에 따른 가족의 구조적 변화나 가족형태의 다양성으로 인해 가족관계와 아동발달을 발달적 관점이나 인간생태학적 관점에서 연구하기 시작했으며, 극히 최근에는 가족원의 발달상태에 미치는 요인으로 가족체계를 연구하는 것이 고려되고 있다.

가족내의 인간관계에 대한 연구는 모-자녀의 2인 관계에 국한되지 않고 보다 확장되어 부-자녀 및 형제간의 연구가 증가되었다. 또한 과거에는 유아기와 아동기의 모-자녀 관계에 관한 연구로 양육행동이 자녀의 성격 형성 및 행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부-자녀관계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청소년기자녀와 그 가족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부모-청소년기자녀관계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갈등이나 의사소통과 같은 특정한 변인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갈등과 관련된 연구로는 자녀와 부모간의 갈등의 근원을 밝혀내거나(Hill, 1980) 부모간의 세대차와 갈등정도(김경숙, 1987; 노영주, 1987), 부모자녀에게 있어서의 갈등의 강도(Smetana, 1988), 갈등의 의미(Hill, 1988; Grotevant & Cooper, 1986), 갈등의 영역(Petersen, 1988) 및 청소년기 동안의 갈등정도의 변화(Montemayor, 1983; Smetana, 1987)에 관한 것들이 있다.

청소년기자녀와 부모간의 의사소통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의사소통의 유형(이정우·김규원, 1989), 세대간의 의사소통 문제(Kennedy, 1971),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석현양, 1983; 이경주, 1989; 이진용, 1991), 의사소통의 형태, 과정, 평가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Larson, 1970) 및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인구학적 변인(옥선화, 1987; 이경주·신희식, 1990) 등이 있다.

한편 Kotler(1975)는 부모자녀관계 연구에서 부모자녀간의 2인가족관계를 조사하는 것이 편리하지만 두사람의 관계는 더 넓은 가족맥락내에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했으며, Parke와 Tinsley(1987) 역시 가족내 한 개인은 수동적이거나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서로 상호작용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부모자녀관계가 가족체계 차원에서 연구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두명의 가족구성원 사이의 상호작용은 종종 다른 가족구성원이 있을 때 발생하므로 다른 사람에 대한 예상이 두 사람간의 상호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가 한 자녀와 맺는 관계는 그 가족내의 다른 자녀와 다른 구성원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가족들은 가족구성원간의 상호작용을 이끄는 규칙과 표준을 가지고 있으므로 가족의 규칙, 표준, 상호작용 과정의 맥락하에서 부모자녀관계를 조사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Kotler 및 Parke와 Tinsley의 제안에 유의한 연구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의 연구들은 부모와 청소년기자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체계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 및 부모-청소년기자녀관계의 정도에 대한 청소년의 지각을 활용하였다. Giuli와 Hudson(1977)은 부모에 대한 자녀의 지각이 자녀에 대한 부모행동을 측정하는 자녀 중심적이지 않은 객관적인 척도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제안했으며, Ausbell등(1954)은 자녀의 발달은 자녀가 부모의 행동에 대하여 지각하는 정도로만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연구자들은 가족경

험에 대한 자녀의 지각이 가족경험의 객관적인 평가보다 자녀의 행동이나 태도에 더 큰 결정요인이라고 제안한다. 이 원리를 확대해서 McDonald(1977)는 청소년의 지각이 중요한 변인일 뿐만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는 이러한 지각이 객관적인 측정과 꽤 일치하므로 청소년의 지각이 적절하고도 상당히 정확한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가족응집성과 적응성에 대한 청소년의 지각이 부모자녀관계의 질에 대한 평가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중·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13~18세의 남녀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측정도구

1)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 척도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의 평가는 Olson, Portner와 Lavee(1985)가 개발한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 척도 III (the Family Cohesion and Adaptability Evaluation Scales III: FACES III)를 연구목적에 맞게 변안하여 사용하였다. FACES III은 Circumplex Model의 두개의 주요한 차원(적응성과 응집성)을 평가하기 위해 Olson과 그의 동료들에 의해 개발된 FACES 시리즈 중 3번째의 자기보고식 척도이다.

가족응집성을 평가하는 것은 10개의 문항으로, 가족의 정서적 유대, 가족의 지지, 가족원간의 경계, 가족공동시간과 친구관계 및 가족의 레크리에이션에 대한 관심 등 다섯가지 구체적인 영역들에 의해 측정된다. 가족적응성을 평가하는 것 역시 10개의 문항으로, 가족의 지도력, 통제, 훈육, 역할 및 규칙에 대한 다섯가지 구체적인 영역에 의해 측정된다.

본 연구자가 FACES III의 구성요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요인수를 지정하지 않고 주성분 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유치가 1.00이상인 요인은 4개 요인이었으며 총 설명변량은 51.8%이었다. 그러나 요인수를 2개로 지정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varimax방법으로 회전시킨 결과, Olson등 (1985)이 제안한 대로 문항이 가족응집성요인과 적응성요인으로 묶어졌으며 이 요인들의 총 설명변량은 39.8%이었다.

Olson등(1985)은 2,412명을 대상으로 FACES III의 응집성 및 적응성요인과 척도전체에 대한 신뢰도 검증 결과, Cronbach α 계수는 .77, .62, .68이라고 했다. 본 연구자가 응집성요인 및 적응성요인과 척도전체에 대하여 신뢰도 검증을 한 결과, Cronbach α 계수가 각각 .85, .74, .86이었다.

한편, 최근에 Olson등(1992)은 경험적 자료들이 FACES III로는 밀착가족과 혼란가족을 밝혀낼 수 없다고 제안하기 때문에 FACES II와 III에 의한 집단 분류법과 명명에 대한 방법을 새로이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응집성 수준에 따라 과잉분리, 분리, 연결, 매우 연결된 가족으로 나뉘어지며, 적응성 수준에 따라서는 경직, 구조적, 융통적, 매우 융통적인 가족으로 나뉘어진다. 또한 응집성과 적응성 수준에 따른 가족체계유형은 균형가족, 약간 균형된 가족, 중간범위가족, 극단가족으로 나뉘어진다.

2) 부모자녀관계 척도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자녀들의 지각을 평가하는 데는 Giuli와 Hudson(1977)이 개발한 '어머니/아버지에 대한 자녀의 태도(the Child's Attitude toward Mother/ Father :CAM/CAF)'척도를 사용하였다. CAM과 CAF는 부모자녀관계의 문제성 정도와 심각성에 대한 자녀의 지각을 평가하기 위한 50문항으로 된 자기보고식 척도이다.

CAM과 CAF는 '나의 어머니는 나를 화나게 하신다', '나는 어머니를 미워한다', '나는 아버지를 싫어한다', '나는 아버지를 원망한다'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CAM과 CAF에서의 높은 점수는 부모자녀관계의 문제가 심각함을 나타내며, 점수가 낮을수록 문제의 심각성을 더 적게 지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자가 CAM과 CAF의 구성요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유치가 1.00이상인 요인은 7개 요인이었으며 총설명변량은 60.8%이었다. 그러나 요인수를 2개로 지정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varimax방법으로 회전시킨 결과, Giuli와 Hudson(1977)이 제안한 대로 문항이 묶어졌으며 이 요인들의 총 설명변량은 45.0%이었다. 이 과정에서

CAM에서의 한개 문항과 CAF에서의 1개 문항이 요인부하량이 낮아(.23, .22) 제외되었다.

Low(1982)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CAM과 CAF에 대한 Cronbach α 계수가 .94, .95였으며, α 계수가 .90을 초과한 사실은 CAM과 CAF 각각의 척도가 단일요인을 재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CAM과 CAF에 대한 타당성 검사 결과, CAM과 CAF는 부모자녀관계에 문제가 있는 집단과 문제가 없는 집단을 구별하는 데 매우 적절한 것이라고 밝혔다. 본 연구자가 CAM과 CAF 및 척도전체에 대하여 신뢰도 검증을 한 결과 Cronbach α 계수가 각각 .94, .95, .96이었다.

3. 절차

본 조사에 앞서 질문지 문항 이해도,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 질문지 작성상의 문제점과 척도의 타당도 및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1993년 4월19일부터 4월22일까지 연구대상에 해당되는 청소년 10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질문지 내용을 수정·보완했으며 완성된 질문지를 대구시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500명을 무선표집하여 1993년 5월3일부터 5월7일 사이에 배부하여 회수하였다.

회수된 자료는 489부였고 이 중에서 응답이 누락된 자료, 자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설정한 거짓 척도 문항간의 응답이 일치하지 않는 자료와 편부모 자녀 및 시설아의 자료를 제외한 443부를 최종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 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처리되었다. 각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요인분석 및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했으며,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각 요인별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하여 Olson등(1992)이 제시한 방법으로 집단을 구분하고 다변인변량분석(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 MANOVA)과

Scheffé의 개별비교를 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가족응집성 수준에 따른 부모자녀관계

Olson등(1992)이 제안한 방법으로 가족응집성 점수에 따라 네 집단으로 나눈 결과는 <표 1>과 같다.

가족응집성 수준에 따른 부모자녀관계에 대해 다변인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족응집성 수준별로 주효과($F=26.94$, $P<.05$)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종속변인별 단변인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 나타난 바와같이 종속변인 모두에서 가족응집성 수준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집단간의 구체적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Scheffé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어머니와의 관계에서는 매우 연결된 집단, 연결집단, 분리집단의 순서로 문제의 정도가 낮았다. 그러나 과잉분리집단과 분리집단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매우 연결된 집단, 연결집단, 분리집단, 과잉분리집단의 순서로 문제의 정도가 낮았다.

이상의 결과는 응집성이 높은 가족집단이 부모자녀관계에 가장 문제가 적다는 것을 나타낸다. 응집성이 높은 가족의 특징은 정서적 유대가 높고 가족 외부의 일이나 활동보다 가족내부의 일이나 활동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가족원들이 함께 보내는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는 동시에 혼자만의 시간도 허용된다. 또한 가족이 함께 레크레이션에 관심을 나타내며 경우에 따라서는 개별활동도 일부 허용된다. 이러한 특징은 비록 청소년기자녀의 자율성이나 독립성 개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확실히 알 수 없으나 부모에 대한 자녀의 태도에는 좋은 조건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도 자신의 가족을 응집성이 높은 상태에 있다고 지각한 청소년들이 가장 높은 질적 수준의 부모-청소년기자녀의 관계를 보고했다.

〈표 1〉 가족응집성 수준별 점수범위

가족응집성 수준	과잉분리	분리	연결	매우 연결	전체(443명)
점수범위	10 - 25	26 - 32	33 - 39	40 - 50	평균: 32.56
빈도(%)	76(17.2)	135(30.5)	153(34.5)	79(17.8)	표준편차: 7.01

〈표 2〉 가족응집성 수준에 따른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다변인변량분석 결과

Effect	Wilks	Approx.F	Hypoth. DF	Error DF	P
가족응집성	.71	26.94	6.00	876.00	.00

〈표 3〉 가족응집성 수준별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단변인변량분석 결과(df = 3, 439)

종속변인	Hypoth.SS	Error SS	Hypoth.MS	Error MS	F	P
어머니와의 관계	20466.76	113590.28	6822.25	258.75	26.37	.00
아버지와의 관계	46087.04	125678.16	15362.35	286.28	53.66	.00

〈표 4〉 가족응집성 수준별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사후검증 결과

종속변인	집단 (평균)	분리	연결	매우 연결
어머니와의 관계	과잉분리 (62.50)	1.75	5.24**	7.69**
	분리 (58.36)	-	4.07**	7.04**
	연결 (50.71)	-	-	3.87*
	매우 연결 (42.29)	-	-	-
아버지와의 관계	과잉분리 (73.25)	3.96**	8.35**	11.53**
	분리 (63.57)	-	5.37**	9.31**
	연결 (52.81)	-	-	4.63**
	매우 연결 (42.03)	-	-	-

* P<.05 ** P<.01

그런데 많은 연구자들은 가족내에 청소년기자녀가 있을 때 그 가족의 주요과업은 청소년기자녀에게 더 많은 독립성과 자율성을 증진시켜 주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일반적으로 응집성이 높은 가족은 청소년기자녀의 독립성과 자율성의 증진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가족들은 서로 매우 결합되어 있으므로 가족구성원을 내버려 두기보다는 붙들어 두는 경향이 더 많아 청소년의 독립성과 자율성 증진에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와는 대조적으로 연령에 맞는 독립성과 자율성의 발달은 청소년들이 가족유대를 버리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주장

도 있다(Mussen et al., 1990).

2. 가족적응성 수준에 따른 부모자녀관계

Olson등(1992)이 제안한 방법으로 가족적응성 점수에 따라 네집단으로 나눈 결과는 〈표 5〉와 같다.

가족적응성 수준에 따른 부모자녀관계에 대해 다변인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족적응성 수준별로 주효과 (F=6.84, P<.05)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종속변인별 단변인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5〉 가족적응성 수준별 점수범위

가족적응성수준	경 직	구조적	용통적	매우 용통적	전체(443명)
점수범위	10 - 21	22 - 27	28 - 34	35 - 50	평균: 27.96
빈도(%)	56(12.6)	142(32.1)	191(43.1)	54(12.2)	표준편차: 6.06

〈표 6〉 가족적응성 수준에 따른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다변인변량분석 결과

Effect	Willks	Approx.F	Hypoth.DF	Error.DF	P
가족적응성	.91	6.84	6.00	876.00	.00

〈표 7〉 가족적응성 수준별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단변인변량분석 결과(df=3, 439)

종속변인	Hypoth.SS	Error SS	Hypoth.MS	Error MS	F	P
어머니와의 관계	914.84	133142.19	304.94	303.28	1.00	.39
아버지와의 관계	13072.60	158692.58	4357.53	361.48	12.05	.00

〈표 7〉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종속변인 중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만 가족적응성 수준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집단간의 구체적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Scheffé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이 높은 집단이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가장 적다는 것을 나타낸다. 적응성 수준별로 어머니와의 관계에서는 차이가 없고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만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가족적응성에 관련되어 평가된 영역이 지도력, 통제, 훈육, 역할 및 규칙에 관한 것

〈표 8〉 가족적응성 수준별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한 사후검증 결과

종속변인	집 단 (평균)	구조적	용통적	매우 용통적
아버지와의 관계	경 직 (71.46)	4.85*	5.40**	4.73**
	구조적 (56.54)	-	.23	1.48
	용통적 (56.09)	-	-	1.44
	매우 용통적 (51.96)	-	-	-

* P<.05 ** P<.01

〈표 7〉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어머니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집단간에 차이가 없었다. 〈표 8〉을 살펴보면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는 경직된 집단이 구조적, 용통적, 매우 용통적 집단보다 문제의 정도가 높았다. 그러나 구조적, 용통적, 매우 용통적 집단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이상의 결과는 가족적응성 수준은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한 자녀의 평가에만 영향을 미치며, 적응성

으로, 과거에 Parson 와 Bales(1955)가 도구적 역할이라고 한 개념과도 관련이 있다고 한 Olson(1993)의 지적에서 일부 설명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문화권에서는 이들 영역이 주로 아버지가 행사하는 내용으로 가족의 적응성은 아버지의 가정내 활동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적응성이 높은 가족은 평등한 지도력과 민주적인 훈육방식을 유지하며 고정적이지 않고 유동적으로

상황에 맞게 역할과 규칙을 변화시키며 문제해결능력이 있다. 이러한 특징은 청소년기자녀에게 자율성을 많이 부여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높은 질적 수준의 부모-청소년기자녀관계에 반영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적응성이 높은 가족은 청소년자녀가 자율성을 성취할 수 있도록 가족의 역할, 규칙, 관계에서의 변화를 최대한으로 촉진시킬 것이다. 그러나 적응성이 낮은 가족은 규칙, 역할, 지도력, 훈육에서 경직된 수준에 있기 때문에 청소년기자녀가 자율성과 독립성을 성취하는 데 지장이 있으며, 그 결과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많을 것이라 생각된다. 경직가족집단에 비해 다른 가족집단이 아버지와의 관계에 문제가 적다는 것은 적응성이 중간 수준인 가족이 극단에 있는 가족보다 문제가 적으며 가족기능에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들(Balswick & Macrides, 1975; Minuchin, 1974; Juruch, 1975)과 일부 일치된다. 적응성이 중간 수준 이상인 가족은 민주적인 통제와 훈육방식을 유지하며 가족끼리 협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다. 또한 역할 분담이 잘 이루어져 있으며 각자의 주장을 단호히 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가족의 청소년기자녀들은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존경과 아버지역할에 대한 신뢰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적응성이 극단적이지 않은 가족은 청소년에게 어느 정도 자율성을 부여하고, 청소년의 독립성에 수반되는 역할, 규칙, 관계에 있어서의 변화를 청소년기자녀가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므로 부모-청소년기자녀관계가 원만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가족체계유형에 따른 부모자녀관계

Olson등(1992)이 제안한 방법으로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 점수에 따라 분류된 가족체계유형별 빈도는 <표 9>와 같다.

가족체계유형에 따른 부모자녀관계에 대해 다변인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가족체계유형별로 주효과($F=16.63, P<.05$)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종속변인별 단변인변량분석을 실

시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종속변인 모두에서 가족체계유형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집단간의 구체적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Scheffe의 사후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표 1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어머니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균형가족이 중간범위가족과 극단가족보다 문제의 정도가 낮았으나, 중간범위 가족과 극단가족 간에는 차이가 없었으며, 균형가족과 약간 균형된 가족 간에도 역시 차이가 없었다. 아버지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균형가족, 약간 균형된 가족, 중간범위가족, 극단가족 순으로 문제의 정도가 낮았다.

이상의 결과는 균형가족이 극단가족보다 문제나 병리중세가 적으며 가족기능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Olson등(1985)의 가설들과 일치된다. FACES III로 측정된 가족응집성과 적응성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균형가족이 낮은 점수를 얻은 극단가족보다 높은 질적 수준의 부모자녀관계를 보고했다. 결과적으로 보다 긍정적인 부모자녀관계로 이끄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은 높은 응집성과 적응성을 보이는 균형가족체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주된 관심은 가족응집성과 적응성에 대한 청소년의 지각이 부모-청소년기자녀관계 평가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하는 것과, 또한 어떤 가족체계가 더 긍정적인 부모자녀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에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가족응집성 수준에 따라 부모자녀관계의 질에 대한 자녀의 지각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특히 가족응집성 수준에서 매우 연결된 가족이 부모자녀관계에서 문제의 정도가 가장 적었다. 둘째, 가족적응성의 수준에 따라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자녀의 지각이 다를 수 있다. 특히 가족적응성 수준에서 경직된 가족이 아버지와와의 관계의 질에 대한 청소년의 지각에서 문제의 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족체계유형에 따라 부모자녀관계

〈표 9〉 가족체계유형별 빈도

가족체계유형	극단가족	중간범위가족	약간 균형된 가족	균형가족
빈 도(%)	60(13.54)	165(37.25)	189(41.76)	29(6.55)

〈표 10〉 가족체계유형에 따른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다변인변량분석 결과

Effect	Willks	Approx. F	Hypoth.DF	Error DF	P
가족체계유형	.81	16.63	6.00	6.00	.00

〈표 11〉 가족체계유형별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단변인변량분석 결과(df=3, 439)

종속변인	Hypoth.SS	Error SS	Hypoth.MS	Error MS	F	P
어머니와의 관계	9755.94	124301.09	3251.98	283.15	11.49	.00
아버지와의 관계	30966.14	140799.05	10322.05	320.73	32.18	.00

〈표 12〉 가족체계유형별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사후검증 결과

종속변인	집 단 (평균)	중간범위가족	약간 균형된 가족	균형가족
어머니와의 관 계	극 단 가 족 (60.57)	1.48	4.18**	3.73**
	중 간 범 위 가 족 (56.89)	-	4.08**	3.79**
	약간 균형된 가족 (49.82)	-	-	1.53
	균 형 가 족 (44.59)	-	-	-
아버지와의 관 계	극 단 가 족 (75.85)	6.19**	8.52**	6.90**
	중 간 범 위 가 족 (59.62)	-	4.01**	4.40**
	약간 균형된 가족 (52.19)	-	-	2.02*
	균 형 가 족 (44.76)	-	-	-

* P<.05 **P<.01

의 질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균형가족이 극단가족에 비해 가장 건전한 부모자녀관계를 확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가족체계 연구에 있어서 개별가족구성원의 행동에 대한 초점에서 벗어나 부모자녀관계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족체계를 밝혀 청소년기 자녀를 위한 건전한 가족환경 조성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는 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이 부모-청소년기 자녀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로서 본 연구가 갖는 제한점을 지적하고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이 대구시내 청소년에 제한된 점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다소 무리가 있으므로 다양한 지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추후 요망된다. 둘째, 본 연구는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과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청소년의 지각만을 측정했다. 그러나 부모나 가족구성원들의 평가가 다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가족구성원 모두를 연구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본 연구는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에 대하여 가족내부인-청소년-의 평가만을 활용하였다. 그러나 외부관찰자-예, 임상이나 가족연구가-의 관찰

이 병행된다면 가족상호작용에 대하여 보다 유용한 자료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네째, 본 연구는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과 부모-청소년기자녀관계에 관한 것만 연구하였다. 그러나 앞으로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이 부부관계, 형제자매관계 및 개인의 적응(adjustment)에 미치는 영향도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 본 연구는 부모-청소년기자녀관계에 대한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의 영향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체계이론의 견지에 의하면 부모자녀관계가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의 수준에 또한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가족체계와 부모자녀관계의 상호 영향에 대한 연구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여섯째, 최근 Olson등(1992)은 FACES II와 FACES III의 점수에 의한 가족체계유형분류법을 개정했다. 따라서 과거 Olson의 가설을 지지하거나 반박하는 결과를 보고했던 연구들은 새로이 제시된 방법에 의해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와 기준이 모두 외국에서 개발되어 적용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수의 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행하여 우리문화에 맞는 척도개발 및 기준 설정이 우선적으로 요망된다고 하겠다.

【참 고 문 헌】

1) 김경숙. 부모와 청소년기 자녀사이의 갈등에 관한 연구. 관동대 논문집, 15, 1987.
 2) 김진숙·유영주. 어머니와 청년기자녀와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 1985, 77-91.
 3) 박기순. 가족커뮤니케이션. 사회과학(성균관 대학교), 23, 1984, 155-192.
 4) 석현향. 가정의 의사전달형태가 청소년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국민대 석사학위 청구논문. 1983.
 5) 오연옥. 청년기 자녀와 부모와의 대화. 계명대 석사학위 청구논문. 1987.
 6) 유순덕. Circumplex Model에 입각한 한국임상가족과 일반가족의 비교연구. 연세대 석사학위 청구논문. 1987.

7) 이경주. 어머니와 청년기 자녀간의 커뮤니케이션과 자녀의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 전남대 석사학위 청구논문. 1989.
 8) 이경주·신효식. 청년기 자녀의 아버지와의 커뮤니케이션과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2), 1990, 1-13.
 9) 이정우·김규원. 청소년기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와의 커뮤니케이션 유형 및 만족도 연구. 대한가정학회, 27(3), 1989, 147-159.
 10) 이진용. 어머니-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자기존중감과의 관계. 연세대 석사학위 청구논문. 1991.
 11) 임용우. 가족체계 유형과 청소년의 부적응 행동과의 관계. 서울대 석사학위 청구논문. 1984.
 12) 한상분. 아동의 자아개념과 가족체계의 기능유형. 한국아동학회지, 14(2), 1992. 145-160.
 13) Adams, B. N. the Family: A Sociological Interpretation. 3rd edition. Chicago:Rand McNally. 1980.
 14) Alexander, J. F. Defensive and supportive communications in family system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5 (Nov), 1973, 613-620.
 15) Angell, R. The Family Encounters the Depression. New York: Charles Scribner & Sons. 1936.
 16) Ausbel, D. P., Balthazar, E.E., Rosenthal, I., Blackman, L.S., Schoont, S.H., & Welkowitz, J. Perceived parent attitudes as determinants of childrens' ego structure. Child Development, 25 (Sept), 1954, 173-184.
 17) Barnes, H. & Olson, D.H.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the Circumplex Model. Child Development, 56, 1985, 438-447.
 18) Baumrind, D. Current patterns of parental authority. Developmental Psychology Monograph, 4(1, pt.2), 1971.
 19) Bell, R. Parent-adolescent interaction in runaway famili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1981.

- 20) Bowen, M.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New York: Jason Aronson, 1978.
- 21) Bukley, W. *Sociology and Modern Systems Theory*. New Jersey: Prentice Hall, 1967.
- 22) Clake, J.P. The family types of schizophrenics, neurotics, and "normal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1984.
- 23) Douvan, E. & Adelson, J. *The Adolescent Experience*. New York: Wiley, 1966.
- 24) Druckman, J. A. A family oriented policy and treatment program for juvenile status offende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 (Aug), 1979, 627-636.
- 25) Garbarino, J., Sebes, J., & Schellenbach, L. Families at risk for destructive parent-child relationships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55, 1984, 174-183.
- 26) Giuli, C.A. & Hudson, W.W. Assessing parent-child relationship disorders in clinical practice: The child's point of view. *Journal of Social Science Research*, 1 (Fall), 1977, 77-92.
- 27) Glueck, S. & Glueck, E. *Unraveling Juvenile Delinquenc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50.
- 28) Haley, J. *Strategies of Psychotherapy*. New York: Grune and Stratton, 1963.
- 29) Hetherington, E. M. The effects of familial variables on sex typing, on parent child similarities, and on imitation in children. pp. 82-107 in J.P. Hill (Ed.), *Minnesota Symposium on Child Psychology*, Vol.I.,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71.
- 30) Hill, R. *Families under Stress*. Westport, Connecticut: Greenwood Press, 1949.
- 31) Jurich, A.P. & Jurich, J.A. The lost adolescent syndrome. *Family Coordinator*, 24(July), 1975, 357-361.
- 32) Kandel, D. & Lassar, G.S.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s and adolescent independence in the United States and Denmark.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1 (May), 1969, 348-358.
- 33) Killorin, E. & Olson, D. H. Clinical application of the Circumplex Model to chemically dependent families.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Minnesota, 1980.
- 34) Kotler, T. Characteristics and correlates of parent-child relationships. *Genetic Psychology Monographs*, 91 (Feb), 1975, 121-168.
- 35) Lavee, Y. & Olson, D.H. Family types and response to stres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1991.
- 36) Lowe, D.W. Family cohesion, family adaptability, and the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 Unpublished dissertation. College of Social Sciences, The Florida State University, 1982.
- 37) McCord, W., McCord, J., & Zola, I.I. *Origins of Crim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59.
- 38) McCubbin, H., Boss, P., Willson, L., & Lester, G. Developing family invulnerability to stress: Coping strategies wives employ in managing separation. In Jan Trost (Ed.), *Proceedings World Congress of Sociology*. Beverly Hills: Sage, 1979.
- 39) McDonald, G.W. Parental identification by the adolescent: A social power approac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9 (Nov), 1977, 705-719.
- 40) Minuchin, S., Montalvo, B., Guernsey, B.G., Rossman, B.L., & Schumer, F. *Families of the Slums*. New York: Basic Books, 1967.
- 41) Minuchin, S. *Families and Family Therap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4.
- 42) Minuchin, S., Rossman, B. L., & Baker, L. *Psychosomatic Familie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8.
- 43) Mussen, P.H., Conger, J.J., Kagan, J., & Huston. *Child Development and Personality*. New York:

- Harper & Raw, 1990.
- 44) Olson, D.H.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s: Assessing family functioning. In Walsh, Froma(Ed.), *Normal Family Processes*. The Guilford Press:NY/London, 1993, 104-136.
- 45) Olson, D.H. Commentary: Struggling with congruence across theoretical models and method. *Family Process* 24, 1985, 203-207.
- 46) Olson, D.H., McCubbin, H.I., Barnes, H., Larsen, A., Muxen, M., & Wilson, M. *Family Inventories*.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St. Paul, MN. 1992.
- 47) Olson, D.H., Portner, J., & Lavee, Y. *FACES III*.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St. Paul, MN. 1985.
- 48) Olson, D.H., Russell, C.S., & Sprenkle, D.H. Circumplex Model of marital family systems: VI. Theoretical update. *Family Process*, 18, 1983, 3-28.
- 49) Portner, J.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s: Interaction types and Circumplex Model*. Unpublished dissertation.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St. Paul, MN. 1981.
- 50) Reiss, D. A theory for relating family interaction to individual thinking. *Family Process*, 10 (March), 1971, 1-27.
- 51) Rodick, J.D., Henggeler, S.W., & Hanson, C.L. An evaluation of the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s and the Circumplex Model.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4, 1986, 77-87.
- 52) Rollins, B.C. & Thomas, D.L. A theory of parental power and child compliance. In R. C. Cromwell and D. H. Olson (Eds.), *Power in Families*. New York: Halsted and John Wiley, 1975.
- 53) Rosenblatt, P.C. & Titus, S.L. Together and apartness in the family. *Humanities*, 12, 1976, 367-379.
- 54) Russell, C.S.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s: III. Empirical evaluation with families. *Family Process*, 18, 1979, 29-45.
- 55) Sprenkle, D.H., & Olson, D.H.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s: IV. Empirical study of clinic and non-clinic couples.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4, 1978, 59-74.
- 56) Stierlin, H. *Separating Parents and Adolescents*. New York: Quadrangle. 1974.
- 57) Watzlawick, P., Beavin, J.H., & Jackson, D.D. *Pragmatics of Human Communication*. New York: W.W. Norton. 1967.
- 58) Westley, W.A. & Epstein, N.B. *Silent Minority: Families of Emotionally Healthy College Students*. San Francisco: Jossey-Bass. 1969.